



교육 분야는 경쟁제한적이어야 하는가

정 호 열 |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소장

1

앞으로 50년 뒤, 그러니까 2050년 즈음 한국의 총인구는 얼마 정도가 될까. 우리나라는 대만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출산율 1.06을 기준으로 그 때의 인구는 어림잡아 3,000만명 정도 그리고 인구감소를 매우는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약 1,0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헤아리기 어려운 인구를 가졌으며 우리 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중국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중국의 변방경제로 평가되기도 하는 북한권역과 더불어 한국의 실질적 중국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총인구의 대폭적 감소에 맞물린 이주노동자의 대규모적 유입은 한국사회 전반의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몰아올 것이요, 이를 위한 중장기적 국가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고 경쟁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인구감소와 이주노동자의 대거유입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좋은 삶든 혹은 원하던 원치 않든 간에 한국 사회의 필연적 국제화를 가져 올 것이다. 여기에서 냄비와 같이 시시때때로 끓어오르는 한국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이러한 국제화의 필연성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도 있다.

여기에서 한국사회의 민중주의적 성향이 민족주의적 요소와 결부되는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한국과 한국인은 민족주의를 버리고 국제주의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예컨대 최근 논란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을 둘러싼 논란도 바로 이러한 갈등, 즉 국제화와 배타적 민족주의 사이의 갈등에 다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출산율 저하 혹은 넓은 의미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파괴적 효과를 경험하였거나 지금 겪고 있는 분야는 여럿이다. 우선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분야, 유아복을 비롯한 유아용품과 유아교육서비스, 그리고 초중등교육 분야 그리고 대학교육 분야 등의 순서다.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분야나 유아용품 시장의 경우의 구조조정은 소리소문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국민경제의 구성부분이었던 점도 있고 당해 분야의 경우 처음부터 경쟁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법한 초중등교육 분야의 경우도 큰 문제가 아니었다. 국공립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까닭에 국가재정이 이와 관련된 엄청난 비용을 소리소문 없이 커버하였기 때문이다. 교사의 대량해고와 같은 구조조정 없이 과밀교육 해소 혹은 교육여건 개선과 같은 이름하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교육 분야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대학의 압도적 다수가 사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입생 수의 절대적 감소와 관련한 심각한 우려가 대학가에서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고,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 신입생 수가 절대적으로 또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 교육당국의 대학정책은 정반대의 길을 달렸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력수급정책 차원에서 오랫동안 엄격하게 유지된 통제를 대폭 풀어 대학 설립허가를 남발하고 기존 대학의 정원을 엄청나게 늘린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거나 혹은 단시일 내에 파국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을 인식하면서 진행시킨 무책임한 정책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전국 곳곳에 그 고장 대학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던 터에, 실력은 없으나 진학욕구가 높은 돈있는 계층에서 터져 나온 대학문호 확대의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 내고 대학교육을 받겠다는 수요자에게 교육기회 자체를 부인하는 구조적 상황은 합리적일 수 없다.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1980년대와 90년대 들어 많은 대학을 신설하고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은 대학교육 분야에 존재하던 높은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만성적 수요초과

상태를 구조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이 선택과 집중의 표어아래 구조조정과 커리큘럼을 개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열을 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대학교육 분야의 친경쟁적 구조 때문이다. 우수한 교수를 보다 많이 채용하고, 정보화와 국제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보다 양호한 물적설비를 도입하여 대학 차원의 살아남기 위한 혹은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

3.

농사 중의 농사는 자식농사라는 말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에 이를 적용하면 자식농사는 천하지대본이 된다. 그러니 한국인들은 자식농사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할 것 없이 필사적으로 자식농사에 매달린다. 자식농사의 요체는 자기의 자식을 좋은 지역의 평판좋은 고등학교를 거쳐 명문 대학에 보내는 거다. 이를 위한 경쟁은 그야말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치루는 총칼없는 전투다.

7월 2일자 연합뉴스가 전한 금융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대 입학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그 지역 평당 아파트 가격이 878만원 비싸진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명문 사립대 입학이 보장된다는 외국어고 진학에 지역제한을 두겠다는 느닷없는 발표가 소용돌이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엇그제 사표를 낸 것으로 보도된 교육부총리에게 최후의 일격이 된 사건은 학교급식사고이지만, 아무래도 외국어고 지원자격의 지역제한이 불러일으킨 파문 쪽에 비중이 더 실리는 듯하다. 교육의 공익성이라는 이름을 내건 주장과 다양한 고등학교의 개설 그리고 고교입학에서의 경쟁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의 대립과 전투의 현장에서 전사한 셈이다.

이제 한국인들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경쟁의 장은 전세계로 확대되었다.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국내에서의 승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혹은 내신경쟁이나 대학입학과정의 불공정성에 이를 갈거나 혹은 획일적인 국내 중등교육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부자들은 초등학생이든 중등학생이든 자신의 아이를 가차없이 유학보낸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이 뜬다는 예상 하에 우리 보다 생활조건이 열악하고 교육시스템도 엄청 후진적인 중국유학도 마다 않는다.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대학 입학률 표적으로 하여 전세계 인터내셔널 스쿨의 명문대 입학률과 등록금을 조사한 후, 히말라야 산속이거나 몽골 혹은 남아공의 국제학교를 골라 아이를 보내기도 한다. 아이 혼자 보내면 잘못 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도 따라 보내거나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따라 간다. 국내에 남은 기러기 아빠는 자신의 전 수입을

모자가 머무는 외국에 보내고, 자신은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알콜 중독이 되기도 한다. 21세기 개명천지 한국에서 일어나는 디아스포라요 자초한 가정파괴다.

4.

우리나라 교육당국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부 결과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능사로 해 왔다. 90년대 이후 대학입학기준이 변하지 않은 해는 한 해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주된 핵은 공부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경쟁의 핵심적 과정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의 배경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전교조와 같은 교사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평등주의적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수능시험 성적에 따른 서열화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 의한 선발 혹은 자질을 기준으로 한 선발을 강조한다. 또 이러한 틀을 유지하기 위해 중등교육을 획일화하고 학교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과 개별 학교의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해 왔고, 대학의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본고사 실시나 자율적 정책의 여지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경쟁제한에는 필연적인 대가가 있다. 입시제도가 복잡하고 변화가 많을수록 더 큰 비용이 수반된다. 자력있는 계층에서 정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명문대일수록 신입생 중 부자집 아이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양한 기준에 의한 선별이라는 기준의 수사적 아름다움 뒤에는 서민계층의 자제들의 명문대 진학률의 현저한 저하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한국사회의 계층적 질서의 구조화 혹은 신분이동의 경직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화, 정보화 등 오늘날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줄거리들은 기본적으로 친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들의 경쟁지향적 개편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대학은 물론 중등교육 분야도 다양화, 자율화, 분권화라는 한국사회 내부의 큰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다양한 중등학교들, 예컨대 공영형 혁신학교,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 등을 다수 개설하여 교육수요자들의 선택에 맡기고, 대학이나 각급 학교가 학생선발과 관련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학교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의 여지가 커질수록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자율의 폭이 넓어질수록, 교육이민이니 기러기니 펭귄이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유능한 인력이 국외에 항구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인구감소의 장기적 위협에 대처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그 위대했던 로마가 망한 데는 생물학적 요인도 있었다. 즉 가장 유능한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늦게 한데다 아이는 제일 적게 낳았던 것이다(The ablest married latest, had fewest and died earliest). **경쟁지침**